

## 교회소식

한 해의 절반이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폐제기도회** : 7월 폐제 찬양과 기도회가 6일(수) 저녁 7: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절전을 위해 7,8월에는 다소 간편한 차림으로 교회에 오십시오.

창세기 15:1~7

오늘 식당 봉사 : 이형숙 광혜자 이명희 이영옥 장은주 이국노 설규범  
 다음 주 식당봉사 : 안홍숙 이증자 이수정 노성희 이혜경 강신철 홍순구 최재욱  
 오늘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41-4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40세 이하)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2016-27

7월 3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모으로  
 상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일 낮 예배 순서

【강림 후 제 7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9. 찬송하는 소리 있어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중턱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온 길을 돌아 봅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늘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몸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신음소리와 절규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터키에서 테러의 희생양이 되어 무고하게 죽어간 이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 곳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힘과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호12:5,6 ..... 인도자

♣ 교 독 문 ..... 106. 감사절(2)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393. 오 신실하신 주 ..... 다 함께

♣ 성경봉독 ..... 행 18:24-28 .....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II. 신영신 집사

봉독자

다 함께

2부찬양 ..... 사랑 ..... 찬양대

말씀 ..... 사람이 온다는 건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세기	이소애	강요한	원은이	공종철	구자경	구명자	권미숙	숙경원	권혁민	순호영
박해경	김경혜	김순혜	김기석	김희우	김나름	김승현	김수진	김인애	김정수	김정희	김지훈
김영희	김인걸	문영혜	김정린	김정훈	이진영	김주영	김중수	이순옥	이수옥	이정현	이정현
김정우	김현동	유경영	김정홍	박범희	박미경	박병구	박상우	박은혜	박서유	박주성	박준형
이기분	방문성	박혜은	방민식	배삼순	배재경	이정현	이오미	이랑유	이범주	이정현	이정현
하미림	신정훈	이은미	신진식	변혜정	안종일	이소원	이민희	공재삼	이정현	이정현	이정현
유은정	유종희	윤순우	이경남	이계선	이우원	이원석	이원석	이원석	이원석	이원석	이원석
이부곤	이성범	권현숙	이예서	이우영	김재영	전인섭	정완수	정완수	정완수	정완수	정완수
임승동	백해숙	임주빈	최현옥	장재영	김재영	전인섭	정완수	정완수	정완수	정완수	정완수
유병선	조경자	조관행	홍선희	최미자	최숙	최옥	최옥	최옥	최옥	최옥	최옥
최형균	강경화	한상균	한상익	정영선	한인철	조윤	조윤	조윤	조윤	조윤	조윤
홍순복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 감사헌금

강석남	강신철	이해경	김대규	김정현	이은아	김향자	박숙미	박재영	이현정
신진식	변혜정	은종인	이계선	이소순	이범석	류정욱	이순이	이시경	이인숙
이현죽	이형석	임선양	신현숙	임설희	전은택	전인섭	추은총	한상의	정영선
무명11									

### 녹색꿈헌금

김지현 박순섭 권미숙 윤미경 윤수진 이고임 이미정 무명4

### 생일감사헌금

박병구 박현진 이건호 이고임

속명	인도자	모일 곳	속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문금석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디옥	최경미	최경미	청파2속	송형운	
가나안	장영숙	송인선	청파3속	하현철	
베다니	박홍재	백묘현	청파4속	김정민	
시온	권미숙	박효선	청파5속	장영숙	
에베소	백해숙	이은문	청파6속	신진식	
빌립보	곽권희	오유경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노성희	청파8속	이범석	
나사렛	김경혜	송양진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 하루의 사용법

슬픔은 수령하되 눈물은 남용 말 것  
 주머니가 가벼우면 미소를 얹어 줄 것  
 지갑을 쫓지도 쫓기지도 말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침묵의 틈에 매운 대화를 첨가할 것  
 어제와 비교되며 부서진 나  
 이웃 동료와 더 건주는 건 금물  
 인맥은 사람에 국한시키지 말 것  
 숲 속의 풀꽃 전깃줄의 날개들  
 지구 밖 유성까지 인연을 넓혀갈 것  
 해찰을 하는데 1할은 할애할 것  
 고난은 추억의 사원  
 시간을 가공 중이라고 자위할 것  
 돌아오는 길에  
 낮익은 별들에게 윙크하기 잊지 말 것

- 조재형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동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6월 새교우
♣ 봉헌	주만 바라볼지라 ..... 은종인 권사의 3자녀
♣ 봉헌기도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담임목사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타인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사십시오.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에게 배움을 구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함께하실 것입니다.
다함께:	아멘. 교만에 사로잡히고 아집에 빠져 타인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 환대의 품을 열고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늘 배우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찬양과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안홍숙 권사	허신열 집사

7월	1부 영접위원	이부용 박숙미			
	1부 헌금위원	하현철			
	2부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박기영	주은경 김윤정 김경혜 홍춘숙
	2부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믿음으로 읽는 글

## 산승이 교회에 간 까닭은?

유월 어느 날, 산승이 교회에 간 까닭은? 좋은 책을 만들어 사람의 생각을 깨우고 세상을 흔들고 있는 한중호 목사에게 뉘였기 때문입니다. 올봄 강진에서 조금의 인연이 있는 그와 고진하 시인의 영랑문학상 시상식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가 출간한 책과 나의 책을 주고받았습니다. 얼마 후 한 권의 책을 보내왔습니다. 김기석 목사의 편지글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목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김 목사가 시무하는 용산 청파교회에서 열리는 출간 기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무심히 책상에 둔 책을 보았습니다. 먼저 책 표지에 박힌 글들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세속적 우상과의 싸움에서, 회한과 절망 사이에서, 독사의 혀 같이 징그러운 희망 사이에서” 김 목사는 자본과 욕망의 허상에 사로잡혀 비몽사몽으로 살아가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준엄하게 묻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책 표지를 읽고 나서 목차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무엇보다도 흔한 말씀으로 훈계하는 글들이 없어서 믿음이 갔습니다.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정직하고 치열하게 질문하고, 사유의 두레박으로 길어 올린 지혜와 감성이 어우러진 편지였습니다. 많은 시와 인문학 서적의 글에서 성찰하고 예언하는 목회자는 드물기 때문인지 초면에도 어색함 없이 호감과 정감을 나누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려는 목자라는 믿음이 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마약과 성매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왜 신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프란치스코 교종이 마닐라에

서 12세 소녀에게 받은 질문을 되새기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세상의 굳어짐을 풀어주는 일이 종교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고 묻지 않고 그저 경전의 말씀이 유일한 정답이라며 기교 있게 쏟아내는 오늘의 종교인에게 따끔한 일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김 목사의 글과 함께 내가 받은 나직한 감동은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교회의 겉과 안은 소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돈으로 치장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그 흔한 리모델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먹고 꾸미려고 한다면 결코 돈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당의 벽은 옛 모습 그대로인 듯했고, 의자는 낡아서 반질반질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더없이 편했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하고 따뜻한 가슴을 느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종교건축물이 넘치는 시대에 돈을 입히지 않는, 그 겸허하고 당당한 자신감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생각해 보니 역대 담임목사들의 생각도 대단하지만 신자들 역시 훌륭합니다. 구원이 결코 크고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음을 알고, 대형 교회에 주눅들지 않는 그 신앙적 태도는 모든 종교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불교 수행자인 나를 대하는 교회의 신자들은 조금도 경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었고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중국 명나라 문인 진계유는 작은 깨달음을 시로 말했습니다. “고요히 앉아 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그렇다면 그날 이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청파교회에 앉아 본 뒤에야 오늘날 마음의 성전이 사치스럽고 허황됨을 알았네.”